

# 질의에 대한 응답 (Q&A)

사업개발본부 사업총괄실 F/S 지원팀



Q1

해외건설사업 등록자가 아닌 경우, 그리고 중소기업이 주관하여 사업 참여시, 공공기관 참여가 가능한지?

- ▶ 『해외건설 촉진법』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해외 건설사업자로 인정되므로 이 경우 참여 가능. 다만, 문의해 오신 공공기관이 관련 법령의 대상자인지는 별도 확인 필요함.
- ▶ 더불어, 컨소시엄을 맺는 경우 대표사가 해외건설사업자일 시 참여 가능하며, 이로써 역량있는 중소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참여 활성화를 돕고자 함.



Q2

KIND에서도 KOICA, KIAT등 처럼 중점협력국가를 선정하여 F/S지원 대상사업 선정 時 적극 지원하고 있는지?

- ▶ KIND는 중장기 전략 주요 진출국을 핵심사업국, 협력 진출국, 중점 지원국 등으로 나누어 다양한 사업개발 활동을 위해 전략적으로 다른 approach를 취하고 있음. 그러나 F/S지원사업의 경우 대상 선정에 있어 사업성 및 사업주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주요 결정 요인으로 삼을 뿐이며, 중장기 전략 주요 진출국에 대한 평가 배점은 현재로서는 없음.



## Q3 타 기관 예비 F/S 후, KIND에서 본 F/S 신청 가능한지?

- ▶ 가능함. 다만 기 수행된 예비F/S 보고서 등의 정보 공유가 가능하여야 하며, 사업 관련하여 구성된 사업주 모두의 신청이 필요함.



## Q4 투자사업 구도하에서 입찰하는 경우 F/S 및 FEED 비용 지원 가능한지?

- ▶ 지분투자가 수반된 EPC 입찰시, F/S 및 FEED 지원은 원칙적으로는 가능. 다만 KIND의 F/S지원은 단순히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 발주부터 수행과정 관리를 포함함.
- ▶ 또한 F/S 및 FEED의 비용 규모를 감안할 때 현재 재원으로는 일부 지원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KIND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시 KIND와 전체 F/S 결과물을 공유한다는 사실에 대해 이해 필요.  
(KIND 지원으로 수행되지 않은 결과물도 공유한다는 의미)



Q5

외국 기업과 JV로 참여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타당성 조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 ▶ 1) 우리기업의 해외투자사업 수주 진작을 목적으로 하고,
- 2) KIND의 사업 참여(KIND내 정책 Fund 참여 포함)가능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대한 이해 및 동의가 선행될 필요. 참고로, 국내 사업주의 경우, 사업주를 구성하는 모든 기업에게 신청서 및 서약서를 요청드리고 있음.



## Q6 하반기 F/S지원제도의 구체적인 일정

- ▶ '20년 하반기 사업 공모는 이미 진행되었으며, '21년 상반기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공모는 '20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21년 1월 사업선정을 거쳐, 3월 F/S 착수를 계획 중임.



Q7

사업 신청 후 선정이 안될 경우 선정이 안 된 이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었으면 함.

- ▶ 한정된 재원을 두고 상대평가를 통해 지원하므로, 좋은 사업성의 사업도 간혹 선정되지 못 할 수 있음.
- ▶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사업성 관련 보완점 등 향후 사업 개발 관련 협의는 KIND내 각 사업개발 공종별 담당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람.





## Q8 F/S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화 성공/실패 사례 공유가 가능한지?

- ▶ F/S이후 투자결정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해외투자개발사업 특성상, 2019년부터 F/S지원사업을 수행해온 KIND내 외부에 공개될 사례가 아직 충분히 많지 않은 것이 현실.
- ▶ 사업화 실패/성공 사례 공유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였고, 관련 사례 외부 공개 건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에 반영하겠음.



Q9

예비 F/S, 본 F/S 단계별로 KIND에서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예비 F/S 단계에서 요구하는 사업 단계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 ▶ 사업주 입장에서의 예비 F/S 또는 본 F/S 진행 여부 판단은 각 사업의 구체성에 근거하며, 이는 사업에 따라 달라짐.
- ▶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는 사업성을 검토할 만한 수준의 구체성이 갖춰진 경우이어야 할 것이며, 사업화 개연성을 검토하기 위한 주요 요소로는 1) 해당 사업 공종에 대한 사업주 (사업 구성 기업들)의 기술적 역량 (투자, 운영 경험 등), 2) 해당 지역 시장에 대한 사업 경험, 3) 지속적인 revenue cash flow 확보 가능성 등이 포함.
- ▶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한 실사 성격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단계의 사업의 경우, 예비 F/S없이 본 F/S 진행.



Q10

KIND 투자개발사업 Target 국가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만약 존재한다면, 그 국가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선정에 유리한지?

▶ KIND 투자개발사업 Target 국가를 별도로 선정해 놓지는 않았음.

Q11

EPC+F 사업도 지원이 가능한지?

▶ 현재 원칙적으로 지분투자가 수반되지 않는 EPC+F사업은 지원하지 않음.



## Q12 투자개발 사업국가의 세법(법인세), 일반 법률 등의 자료 제공 지원도 포함되는지?

- ▶ 기본적으로 F/S(타당성 조사)라 함은 해당사업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재무, 기술, 법률 분야 등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함. 본 F/S지원제도는 대상 사업의 필요 분야에 대해 최대한으로 지원하고자 함. 다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전체 필요 금액이 클 경우, 사업주와 필요 재원에 대해서 분담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음.



Q13

타당성 조사와 더불어 마스터 플랜(혹은 기본 계획)의 재수립, 수정 등이 과업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 사업 타당성 조사와 더불어 마스터 플랜 재수립도 과업 내용에 포함 가능.

Q14

컨소시엄 구성 후 사업 선정되어 용역 발주 시, 컨소시엄 참여사가 용역 수행자로 선정되거나, 혹은 입찰 참가 가능한지?

▶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KIND와 함께 용역사 선정 및 관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용역사 역할과는 분리되어야 함.



## Q15 해외투자사업 자문사가 F/S신청 가능한지?

▶ 기본적으로, 실제 사업을 시행할 사업주가 지원신청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함.

## Q16 기술적 타당성 분석에 기본설계/설계 용역이 해당되는지?

▶ Cost-estimation을 위한 수준의 설계 정도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 포함 가능함.

Q17

프로젝트 사업성 검토에 원자재 확보 여부가 중요한 경우, 광물 매장량 기초 탐사 비용도 지원되는지?

▶ F/S와 함께 그 일부로 보아 지원 가능하나, 광물 매장량 기초 탐사 비용만을 지원하지는 않음.

Q18

KIND에서 지분 투자 이후 exit할때, 사업주에게 우선적인 인수 옵션 부여 조건도 가능한지?

▶ 가능함. 다양한 투자조건에 관한 논의는 F/S후, 실제 투자결정 논의 시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

## Q19 공모사업과 비공모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 비공모사업은, KIND가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발굴을 위해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또는 기타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임.

가) 정부간 협의 또는 합의의 이행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

나) 국제금융기구 (MDB)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사업

다) 공사에서 직접 참여중이거나 참여를 검토 중인 사업



## Q20 지원국가 중 OECD7등급 국가 사업도 지원이 가능한지?

- ▶ 해당 사업의 국가 신용등급 뿐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다른 여러가지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 감사합니다

KIND 사업개발본부 사업총괄실 F/S 지원팀  
fs@kindkorea.or.kr

